성화랑 8호 10차시 성화랑 플러스

심정을 체휼하다

천원사

02

심정을 체휼하다

생각 열기

오늘 주제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point

1 체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2 신앙생활에서 체휼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 신앙생활은 체휼입니다. 체휼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휼해야 됩니다. 체험이 아니라 체휼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슬플 때 내가 그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느껴져 오는 것이 체휼입니다. 체휼하게 되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천8.1.5:10)

-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휼입니다. 체휼해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초월하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고 해서 분하고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비장한 심정이 감돌아 하염없는 눈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신앙자의 본질적인 생활상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고통이 사무쳐 들어와야 합니다.
  가슴이 메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까지 사무쳐 들어와야 합니다. (천 8.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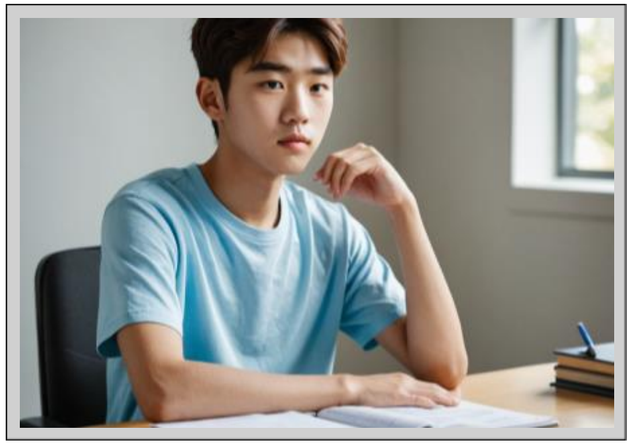
- 체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떠한 내적 심정의 인연을 갖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휼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8.1.5:15)

- 체휼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풀어 드리고
  세계 앞에 기쁨을 나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진대는 나로 말미암아 세계는 수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32-221)

함께 나눠요

기억나는 단어 나누기

무슨 단어가 기억에 남았나요?
생각나는 걸 모두 3번에 적고 공유해요.



기억에 남는 구절 나누기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떠오르는 질문 나누기

서로 떠오른 질문을 공유해요.
질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눠요.

지난 주 말씀 review

1.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모님이심을 밝혀주셨고, 창조원리와 타락, 복귀섭리역사를 가르쳐주셨으며 축복결혼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접붙여 주셨다.
2. 우리는 축복가정으로서 복귀섭리역사의 중요한 결실이며, 이 섭리역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엄숙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3. 타락하여 하늘부모님을 모르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타락성을 벗기위해서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참부모님이 계시다.
4. 참부모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 대신자로서 성장해야하며 참부모님을 모델로 삼아 하늘부모님의 성품을 닮고, 심정을 체휼해야 한다.

그게 모죠?

체휼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왜 체휼해야 할까요?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체휼하다

[體恤- , sympathize]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벧전3:8)로도 표현된다. 특히,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히4:15). → '긍휼', '불쌍히 여김'을 보라.

신앙생활은 체휼입니다. 체휼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체휼해야 됩니다.

체험이 아니라 체휼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슬플 때 내가 그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느껴져 오는 것이 체휼입니다.

체휼하게 되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천8.1.5:10)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휼입니다.

체휼해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초월하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고 해서 분하고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비장한 심정이 감돌아 하염없는 눈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신앙자의 본질적인 생활상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고통이 사무쳐 들어와야 합니다.

가슴이 메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까지 사무쳐 들어와야 합니다.

(천 8.1.5:11)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심정을 닮으라는 가르침이다. 인간에 있어서도 심정은 인격의 핵심이 되게 되어 있었다.

인간에 있어서 인격의 완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한 인간이 바로 심정적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적으로 체휼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상속받게 된다.

그러한 인간은 사람이나 만물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

타락인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생활 그 자체가 사랑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통일사상요강 236p)

심정을 체휼하면

체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떠한 내적 심정의 인연을
갖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휼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8.1.5:15)

체휼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풀어 드리고
세계 앞에 기쁨을 나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진대는
나로 말미암아 세계는 수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32-221)

Keypoint. 하늘부모님의 슬픈 심정을 풀어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

공과 <하늘부모님의 심정 채우기>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걸 느꼈니?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념을 중심삼고
사랑의 동산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었던 그 창조의 이상이 좌절되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천년 역사 속에서 수고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창조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탄과 싸우면서 느끼셨던 그 슬픈 심정을 체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담 해와를 잃어버렸던 그때의 서러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을 때의 하나님의 그 슬픈 심정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를 체휼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잃어버리고 슬퍼하셨던 그 심정을
도저히 체휼할 길이 없습니다. (천1.4.1:3)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생각하며

위로해드릴 수 있기를...